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가운데의 대령 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-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●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●FAX: (031)470-3116



대행 스님

길을 묻는 이에게

제 731 호 현대불교
2009년 5월 13일(음력 4월 19일) 수요일 / 불기 2553년
법공양 페이지

21

잘못되는 거든 잘되는 거든 다 마음의 조작입니다

누구에게나 따뜻한 어머니 마음으로...

☐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부모님께 제가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는데 이제 저도 처음으로 제 자식에게 꽃을 받고 보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깊어짐을 느끼게 됩니다. 또한 이 꽃을 받을 만큼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도 됩니다. 스님, 내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따뜻한 어머니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.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

☐ 우리가 카네이션이다 이란다면 어머니 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. 그래서 어머니날에는 꼭 카네이션을 꽃아 드리게 됩니다. 그러나 어머니날에만 어머니 꽃이 아니라 전체 이 유생 무생이 다 어머니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이렇게 소생시키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즉, 어머니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.

그러니 '이 어머니 꽃이라는 건 꼭 어머니날만이 아니라 사시사철에 솔로가 있구나. 아주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것이 어머니 꽃이로구나.'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머니 꽃을 밟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게 어머니 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니 꽃이 사시사철 만발 돌아가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마음!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항상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 꽃이나 마찬가지로 이겁니다. 어디에도 어머니 꽃은 쓸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.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아리따우니깐 말입니다.

그래서 어머니 꽃이라는 건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, 자식은 어머니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. 내 마음을 너한테 전달하고, 자식은 자신대로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나 또 자식은 어머니에게 전달하고, 남편에게도 바로 부가 불온니까 그 뭐, 카네이션을, 마음의 꽃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. 어머니의 꽃을, 또 그쪽에서도 나한테 또 그렇게 꽃을 줘도 되는 거고 말입니다. 그래서 카네이션이라는 꽃은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렇듯이 모든 꽃이 한데 합쳐진 것이 카네이션이거든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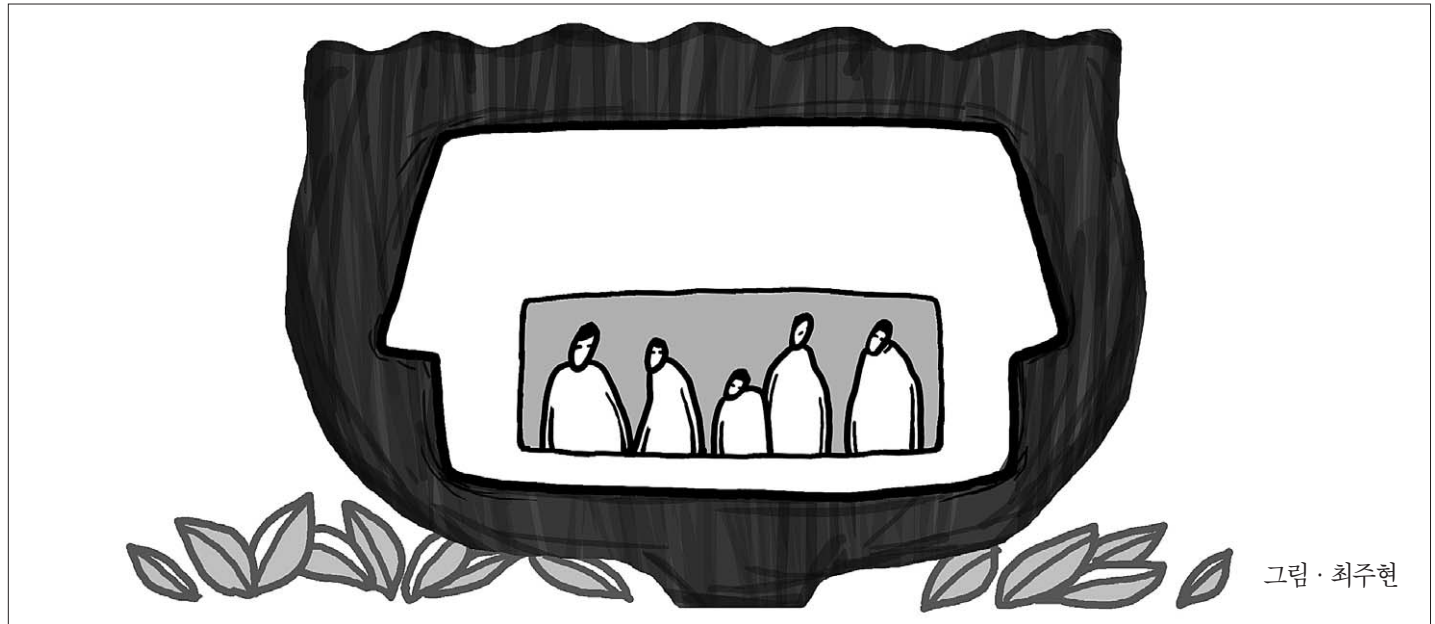
그와 더불어 그 꽃과 같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진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. 인간의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카네이션 꽃과 같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카네이션같이 그렇게 지혜가 넓지 못하고 부족하다면 바로 만 꽃이 되는 겁니다. 즉 말하자면 고정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름에만 속하고 어떤 물질에만 속하다가 보면 그냥 찌지게 돼 버린다 이겁니다.

우리가 이 마음 하나 잘 쓰고 잘못 쓰고 그러는 데서 이 믿음이란 게 옳고 종교라는 게 있고, 부처님 법이란 게 있기 이전에 바로 자기 법인데, 그때

면 가정도 가난할 것이고 마음이 풍부하다면 가정도 풍부할 것입니다. 마음이 진득하고 중심을 잡고 무겁게 사는 사람이라면 발걸음 하나하나

된 한생각을 해 준다면, 바로 그게 무주상으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.

예를 들어 공부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그것을



그림·최주현

로 법인데, 마음을 우리가 자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기 때문에 여대의 부처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.

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, 할머니의 마음도 될 수 있고 또 애제의 마음도 될 수 있고 또 형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도 하고, 동생의 마음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,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렇게,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잖습니까. 그러니 이 부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묘하냐 이겁니다.

그럼 부처님만 그렇게 돌아가느냐.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쓰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. 중심에다, 뱃속에다 참자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참구하고 그렇게 무겁게 탁,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든다면 그게 주장자가 될 것입니다. 그 주장자로 하여금, 일월이 밝아서 고요하게 잠든 밤같이, 만강에 달이 비쳐도 내 중심 하나로 인해서 그 달을 몽땅 몰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겁니다.

어느 강에든지 그렇게 달이 비춰 줄 수 있듯이 여러분도 같이 살면서 누구한테나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. 그 마음이 문제죠.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. 마음이 가난하

면 무겁게 걸 것이고, 값비싸게 걸 것이고 가볍게 사는 사람은 발걸음도 가벼울 것이고, 그렇게 되면 바로 하는 일마다 가벼워지게 됩니다. 그러니 항상 진중하고 넉넉한 어머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

무주상 보시에 대해서

☐ 육바라밀 중 첫번째가 바로 보시인데 그 동안 저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참 인색하게 살았습니다.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좀 보시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. 스님께서는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스님, 우리가 정말 했다는 상(相)이 없이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주상(無住相) 보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☐ 팔만대장경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책을 통해서 본다는 건 벌써 그건 이차적인 겁니다. 일차적으로 보세요.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걸 좀 더 자세히 지켜보세요. 부처님께서도 육바라밀의 첫째 구절에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만, 보시라는 건 물질적으로 주는 거는 금방 깨져 버리거나 먹어 버리거나 써 버리던 그뿐이지만, 무주상 보시라는 건 내가 한 생각을, 그 전체 대공의 이치에 돌아가는 내 귀한

가르치기 위해서 "플락 놔 버려라." 하지만, 길에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"너, 공부해라." 이럴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 그 얽히고설킨 유전성이나 인과응보나 그러한 것이 많아서, 최일에 끄달려서 그냥 얻어지는 사람에겐 가다가도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. 예를 든다면 어떤 이유보다가 법정에서 뺨을 치고 "너는 오 년을 징역을 받아라. 무기 징역을 받아라. 사형이다." 이렇게 된 것을, 즉 말하자면 '야, 모르고 지은 죄니까.' 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나의 그 전체적인 생명체에, 이 모두가 시공이 돌이 아닌 전체에 돌아가는 에너지를 그대로 내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,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바로 그것은 무주상(無住相) 보시로 돼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죽어 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, 심장이 멎어 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

병에 의해서 너무 망쳐지고 죽게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소가 도살장으로 간다든가, 또 사람이 가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가, 이럴 때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겁니다. 가난해서 동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동냥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진실한

한생각이 그 사람을 동냥을 해서 먹고사는 굴레에서 벗어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아주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보시인 것입니다.

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방생이라고 하면 물에서 잘 노는 걸, 제 집에서 잘 노는 걸, 어부더러 잡아오라고 해서, 자꾸 그렇게 잡아오니까 팔리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잡아오죠. 그러니 잡아올 때 죽이지, 잡아다 놓았을 때 죽이지, 또는 가지고 가면서 죽이지, 갖다 놓았을 때 죽는단 얘깁니다. 그러니 그것이 놀부의 짓이지 어디 그것이 보시입니까? 방생이고? 방생이라는 것은 물가에 가다가도 물이 없는 데서 퍼덕퍼덕 생명이 될 때 그때에 물에다 갖다가 넣어 주는 것이 방생입니다. 그럼 이것은 보시가 아닙니다. 이견 오히려 죄를 짓는 법입니다. 그걸 잡아오라고 가르쳐 준 자도 죄를 안 받지 않을 것이고 또 갖다 놓은 사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.

모르니까 다 그렇겠지만,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다 이 소립니다. 자기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 받게 되고, 요만큼 버렸으면 요만큼 버린 것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'모두를 버려라! 버려라! 놔 버려라! 쉬어라! 공에다 일임시켜라!'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

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굶어 죽는 사람 앞에는 무조건, 즉 말하자면 부항이 난 사람한테는 당장 먹어야 사니까, 이웃돕기를 해서 부항을 면하게 해 주는 그것도 보시요, 이견 유(有)의 보시이면서 또 무주상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먹으면서 살려 가면서 끝어다가 이 한마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. 그러니 물질로 줘서만이 보시가 아니라, 물질을 안 주는 것도 보시가 될 수 있고 방생이 될 수도 있고, 물질을 줘서 보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넣어주는 데, 에너지를 넣어주는 데서 바로 무주상 보시가 나오는 겁니다. 본래 가지고 있는 양식이 충분 한데 그것을 먹게끔 해 주는 것이 무주상 보시다 이겁니다. 이해가 가십니까?

다시 말하면 유주상 무주상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같이 마음을 한데 하면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,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, 내 자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면, 어찌 내 생명을 아깝고 남의

22면으로 계속

2기 교육생 모집!

보건식품 처방사

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

“음식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”
한국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통 건강 관리인!

보건식품처방사란?

식약청이 인정한 식품원재료를 기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하는 전문가

교육 대상자

- 건강에 관심이 있는 자
- 허브추출 건강보조(기능)식품 연구 및 개발자
- 신 웰빙 건강 전문가 및 식품 영양 학자
- 웰빙 / 건강관련 창업 희망자
-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전문 유통업 종사자 및 희망자

교육 과 목	교육 기간
전자현미유론, 약초기초, 동양의학기초, 식이섭생, 약처방론, 체질론, 약초관리론, 식품위생보건학, 약용식품영양학, 식재료관리, 임상질병학, 식의처방학, 체질론, 식의학, 식의실습, 중탕론 I, 약초식품방, 약초법제론, 중국황실약선식의방, 중국약초식품방, 식의내과학, 음양식의학, 식의화학론, 식품발효학, 중탕론 II, 특별강의	12주 과정 주중반, 주말반 (주간/야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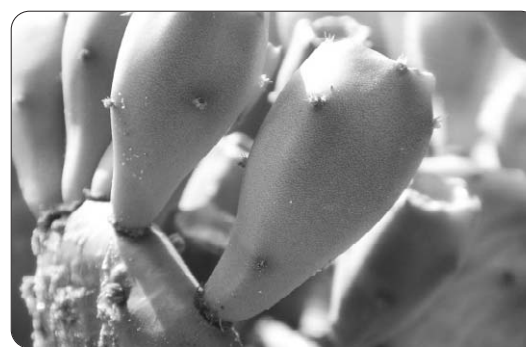
- 접수처 :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-1 신한빌딩 5층
- 수납처 : 한국보건교육원 (신한은행 100-025-095930)

※ 문의 : 02)393-5111 / FAX 02)312-5404 www.kile.or.kr



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/한국평생교육기구
한국보건교육원
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

“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” 천/년/초를 아십니까?



천년초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°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.

특히,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, 제초제,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“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”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품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률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.

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.

한겨울 영하 20°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!
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.

*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%를 사용해 만듭니다.



무료샘플신청 02)780-3989
(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)